

## 대통령의 圖書館觀

지난해 연말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화제도 많았는데 그 중 도서관에 관한 것도 예외일 수 없었다. 미국의 머서대학도서관의 밴드린(J.M. Bandlin)사서는 대통령선거에 앞서서 4명의 후보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견해를 물었는데 이때 클린턴후보는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모든것 즉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국민, 우리의 정부 그리고 자유. 이 모든 것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책과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도서관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여 도서관이 미국에 끼친 큰 업적을 칭송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 24일 「전국사서협회」가 대통령후보에게 이와 비슷한 형태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질문서”를 4개항에 걸쳐 물었는데 아직까지 그 회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한다. 질문내용이 저쪽(미국)의 것보다 부실해서 일까? 아니면 이곳의 사서가 저쪽의 사이보다 권위가 없어서 일까? 이것도 아니면 대통령후보자가 도서관을 보는 식견이 미국보다 뒤떨어진 때문일까?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은 남산의 「어린이회관」시대를 마감하고 1988년 서초동에 거대한 도서관건물을 신축, 이전해 온 것이다. 이는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업적으로 그의 퇴임에 맞춰 준공을 서둘렀다. 그러면서 그 앞마당에 기념비라도 세우고 싶었을 것이다. 이왕이면 커다란 비석에 친필휘호를 써서 후대에 까지 남을 명문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지는 글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징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의 이미지가 가장 함축성있게 전달되도록

운치있고 세련된 언어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마당 한가운데 우뚝선 “讀書의 殿堂”이라는 대통령의 친필을 대할 때 우리는 대통령의 圖書館觀을 다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도서관이며, 전국 267개 공공도서관의 총본산이다. 동시에 국가의 생산도서를 모으고, 문헌정보를 관리하며, 전산화를 통한 전국의 도서관망을 운영하는 중추신경이다.

이러한 기능과 사명을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을 대통령은 그의 휘호 한마디로서 “독서의 전당” 곧 “독서하는 크고 화려한 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물론 도서관은 독서하는 장소로 제공되며 그 기능을 빠드릴 수 없다. 그러나 비석문에 내비친 다섯글자의 의미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정보의 존재가치보다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웅대한 석조건물을 “큰 독서실”로 오해토록 유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신한국건설을 주창하며 취임한 김영삼대통령은 그의 77개 선거공약가운데 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 10만명당 1개수준의 공공도서관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보도된 대통령의 가족사항을 보면 그의 첫번째 女息이 “도서관학”을 전공한 것으로 보아 도서관에 관한 관심과 철학은 남달라 보인다. 때문에 재임중 공약사항은 확실히 완수하겠지만 이때 도서관의 내용이 “독서의 전당”으로만 존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 관리하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다.

(崔貞泰/釜山大教授)